

유럽의 언어학 연구 현장을 찾아서

정호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김아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세계화 시대’라는 말조차 새롭지 않게 느껴지는 오늘날, 언어 문제와 언어학 연구 역시 더 이상 한 나라 안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많은 나라에서 다언어 사회, 언어 복지 및 언어 정체성 등과 같은 공통적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도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대응하고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어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 언어 정책 기관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였던 기관 중 이론 언어학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정보학, 다언어 사회에 대한 연구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를 다녀왔다.

또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특히 현 정부에서 ‘수화기본법 제정 및 청각 장애인 언어 복지 지원 확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수화를 기반

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환경 개선이 언어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 정책 사례를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독일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도 방문하였다.

한편 국어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한국어학 및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인적 교류를 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럽한국학학회(AKSE) 국제 학술 대회에도 참가하였다.

1.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 방문

1.1. 연구소 개관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는 1949년 설립되어 6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소이다. 학술원 산하로 귀속된 것은 1951년이다. 현재 연구 부서 6개와 행정 부서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부서에서는 1) 이론 언어학, 2) 핀·우그리아어학, 역사 언어학, 3) 응용 언어학, 언어 정보학, 사회 언어학, 4) 어휘론, 사전학, 5) 음성학, 6) 심리 언어학, 신경 언어학, 사회 언어학(산하 다중언어연구센터) 등을 연구한다. 현재 연구소의 직원은 모두 120명가량이라고 한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선 일반 언어학(이론언어학) 및 헝가리어학을 연구하는데, 응용 언어학, 우랄어학, 음성학, 다중 언어 및 소수 언어, 헝가리어의 변이 등도 연구한다. 또 헝가리어 사전을 편찬하고 헝가리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등 언

어 응용 및 정보 처리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언어학 관련 도서관을 운영하고 언어 관련 상담을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에외트비스 로란드(Eötvös Lorand) 대학의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과 연계하여 강의도 개설하고 있다.

1.2. 헝가리어 말뭉치 구축 사업

연구소에서는 헝가리어의 이론적 분석과 언어 정보 처리를 위한 실증적 증거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적 헝가리어 말뭉치(HNC, The Hungarian National Corpus)’를 구축한 바 있다. 이 말뭉치는 90년대 후반부의 대표적 자료 187백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경에서 소수 언어로 사용되는 헝가리어의 변이도 포함하고 있다. 이 말뭉치는 주석을 단 최초의 헝가리어 말뭉치로, 검색 엔진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7,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도 수십 편이 나와 있다.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이 향상되었고,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사용된 언어나 구어 등 더 많은 자료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언어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변한 것이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헝가리어 말뭉치의 질·양·범위 등을 향상시켜 연구자 및 전문가 층뿐만 아니라 일반 언중에게도 언어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 간 ‘10억 단어 헝가리어 말뭉치(HGC, The Hungarian Gigaword Corpus)’를 구축하였다. 말뭉치 구축 대상을 수집하고, 자료의 기본 구조를 분석한 후 자료를 정제하며, 자료에 주석을 달고 말뭉치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적 헝가리어 말뭉치(HNC)’를 포함하여 1,091백만 단어의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10억 단어 헝가리어 말뭉치(HGC)’는 형태론적·음운론적 현상 및 연

어, 속어 등을 검색할 수 있고 검색 화면도 맥락별 또는 메타데이터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똑똑한’ 말뭉치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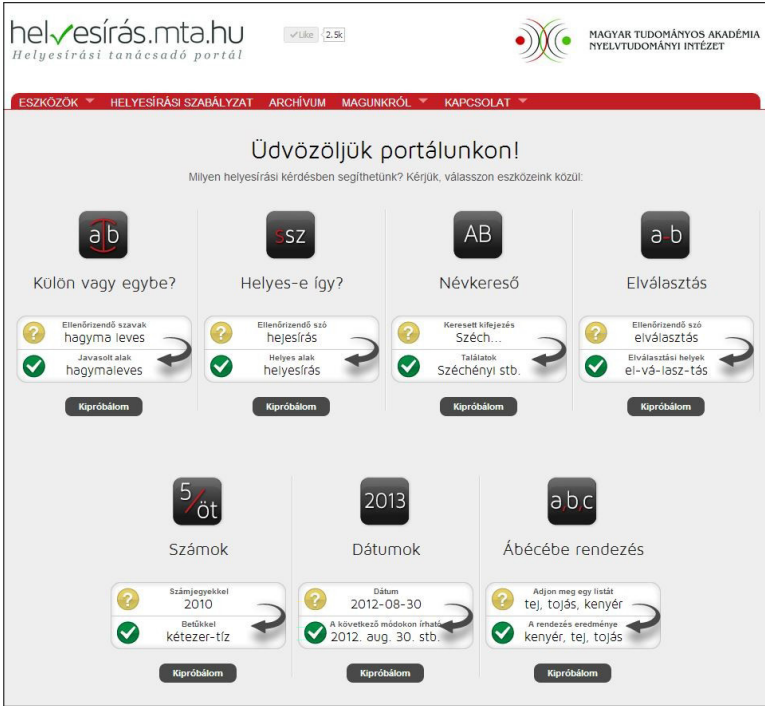
1.3. 온라인 헝가리어 맞춤법 상담 시스템 개발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에도 국립국어원의 국어생활종합상담실처럼 헝가리어 맞춤법 및 언어생활에 대해 상담을 해 주는 기능이 있다. 기존에는 전화 상담원 2인만이 근무했는데 전화 상담이 폭증하여 전화 및 이메일 상담을 보완하기 위한 헝가리어 문법·맞춤법 자동 응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 개발에는 4~8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2년여의 개발을 거쳐 2013년 4월 운용을 시작하였다.

시스템은 복합어의 철자, 일반 어휘의 철자, 대명사의 철자, 음절 분석, 수사의 철자, 낱짜 쓰는 방법, 연어 관계 등 7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화면에서 사용자가 영역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답변 후보를 제시한다.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답변은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관 답변 후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다. 2013년 4월 30일 개통 이후 7월 8일까지 방문자 수는 총 142,998명(단일 방문자 71,130명)이었고, 평균 방문 시간은 약 4분이었으며, 한번 방문했을 때 평균 4.58페이지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방문자의 50.3%가 이 시스템을 다시 이용하였다.

앞으로 검색 엔진 보완, 사이트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이용자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신설하고, 광고를 위한 사이드바 메뉴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PC)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연구소는 적은 인력으로도 시간 제한 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양질의 언어 관

그림 1. 온라인 헝가리어 맞춤법 상담 시스템



런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4. 다중언어연구센터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에는 2008년 다중언어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센터 소속 연구원 14명이 있고, 센터는 사회 언어학을 기반으로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다언어 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중언어연구센터에서는 헝가리 내 언어적 소수 집단, 외국의 헝가리

어 사용자 집단, 헝가리 내 이민자 집단 등의 언어와 헝가리 구어 및 헝가리어의 변이를 주로 연구한다. 또한 수화 사용자를 언어적 소수 집단으로 간주하여 수화와 관련된 연구를 다중언어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소속 연구원 중 2명이 농인이다.

다중언어연구센터의 다양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특히 다언어·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수화 연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헝가리에서는 199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헝가리 수화 및 농문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표적 연구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또한 표준화된 헝가리 수화도 부족했다.

2009년 헝가리 수화법이 입법되면서 헝가리의 수화 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헝가리 수화법에서는 헝가리 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언어적 소수자로 인식하면서 헝가리 수화를 별도의 언어, 즉 자연 언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초기 수화 교육을 강조하고, 농교육에서 수화를 매개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 헝가리어와 헝가리 수화의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수 교육에서 수화 과목을 교육하도록 한다. 또한 수화 전문가(헝가리 수화 교사 등)를 양성하고, 농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화를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헝가리 수화법에서 이처럼 수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2017년까지 수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수화법 입법 이후 수화 연구는 수화 표준화, 수화 통역의 질 향상, 이중 언어(헝가리어 및 헝가리 수화) 교육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 고등 교육을 위한 수화 교육(교사, 통역사, 연구자 등), 방송 등 공공 영역에서의 수화 사용 확대, 수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수화 표준화, 이중 언어(헝가리어 및 헝가리 수화) 교육, 농 정체성 확립 등을 목표로 헝가리 수화를 연구하고 있다. 헝가

그림 2.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에서(왼쪽), 연구소 관계자 면담(오른쪽)

리 수화를 언어학적으로 기술하고, 헝가리 수화의 변이를 연구하며 수화에서의 언어 접촉 현상을 관찰한다. 또한 인류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며, 언어의 사회 심리학적 연구 및 언어 정체성 연구도 수화와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헝가리 수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수화 언어 계획 수립 등도 진행하고 있다.

2. 함부르크대학교 독일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 방문

2.1. 연구소 개관

함부르크대학교 독일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Institut für Deutsche Gebärdensprache und Kommunikation Gehörloser)는 1987년 설립되었지만, 그 출발은 함부르크대학교의 독어학 교수였던 지크문트 프릴비츠(Siegmund Prillwitz)가 독일 수화를 언어로서 연구하기 시작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의 특수 교육에서는

100년 이상 구화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수화 교육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프릴비츠 교수는 1985년 독일 내 특수 교사들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수화가 음성 언어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별도의 언어라고 알렸다. 1987년에는 연구소의 전신인 '독일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센터'가 설립되어 독일 수화 문법 연구 및 교재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후 함부르크대학교에는 독일 최초로 수화언어학과(1992)와 수화통역학과(1993)가 설립되었으며, 연구소는 수화 전문 용어 사전 편찬 사업(1993~2010), 독일 수화 말뭉치 구축 사업(2009~2023)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2.2. 수화 전문 용어 사전 구축 사업

연구소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심리학(~1996), 소목(~1998), 가정학(~2000), 사회 복지(~2003), 의료(~2007), 육아 및 조경(~2010) 등 6개 분야의 수화 전문 용어 사전을 편찬하였다. 한 분야를 구축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자료 수집 1년, 전사 및 집필 2년 등 총 3년이 소요되었으며, 분야 당 소요 예산은 약 12억 원이었다.

이 사업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참여한 사업이라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분야당 농인 4~6명, 청인 4~5명이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농인 연구자들은 전사를 담당하였는데, 대부분 언어학 전공자도 아니었고, 대학에서 수학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농인 연구자들은 연구소에서 전사법 교육을 따로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였다.

수화 전문 용어 사전 구축 과정은 크게 1) 준비, 2) 자료 수집, 3) 전사 준비, 4) 전사 및 분석 등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농인이 많이 일하는 분야를 우선으로 전문 용어를 정비할 분야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화를 제1 언어로 사용

하는 전문가를 제보자로 섭외하고,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수집한 후 청인 연구자가 각 용어의 정의를 집필하였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제보자로 하여금 그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게 하거나, 그 분야 관련 문제를 내는 등 700~1,000여 개의 자극을 제공하여 각 단어를 활용한 다양한 수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사 준비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전사를 할 제보자 및 자료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기초 전사와 상세 전사 등 두 단계에 거쳐 수화 자료를 전사하였는데, 이때 함부르크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화 전사를 위한 세계 공통 기호 함노시스(HamNoSys, Hamburg Sign Language Notation System)를 이용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수화 전문 용어 사전은 책으로도 출간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 사전으로도 제공된다. 각 표제어의 빈도를 표시하여 그 수화가 관습화된 수화인지, 개인이 사용하는 수화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이 사전의 장점이다. 또한 전문 용어를 수집할 때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농인의 수화를 단어가 아닌 문장이나 담화 단위로, 또 지면 조사 방식이 아니라 비디오 녹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연구소는 수화 전문 용어 사전 구축 사업을 통해 수화 말뭉치 구축 사업을 위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2.3. 수화 말뭉치 구축 사업

2010년까지 수화 전문 용어 구축 사업을 완료한 연구소에서는 현재 수화 말뭉치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시작하여 2023년에 마무리되며, 일상생활 수화를 수집하고 수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말뭉치에 기반을 둔 독일어-독일 수화 사전을 편

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에는 840만 유로(약 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크게 1) 데이터 수집, 2) 전사, 3) 말뭉치 공개, 4) 말뭉치 기반 독일어-독일 수화 사전 편찬의 순서로 진행된다. 데이터 수집은 2010년과 2011년 두 해 동안 이루어졌다. 독일 전역 12개 지점에서 330명의 제보자가 선정되었는데, 제보자를 선정할 때 나이, 성(性), 지역, 사회적 배경, 수화 습득 시기 등이 고려되었다. 농부모의 농자녀는 전체 제보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수화 말뭉치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화 말뭉치는 음성 언어 말뭉치와는 달리 영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초상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저작권, 초상권 등과 관련된 안내를 독일 수화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보자에게 제공한 후, 이 사업으로 구축된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 실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제보자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휴식 3회를 포함하여 7시간 동안 19가지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 수행 지침도 수화 영상으로 미리 제작하여 제공하며, 과제 수행 과정에는 청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각 과제 수행 방식에는 제보자 2인, 과제 수행 도우미(농인) 1인, 카메라 5대(정면 카메라 1대, 제보자 정면 카메라 각 1대, 버드아이뷰 카메라 2대), 모니터 3대(1인당 1대)가 있고, 옆방에서 농인 기술자가 과제를 제어하였다. 19개의 과제에는 특정 주제를 설명하기, 대화하기, 토론하기, 농담하기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많은 제보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게 과제를 수행하였다. 말뭉치 구축에 사용된 과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수화 이름 및 그 기원 설명하기
- 상대방에게 농담하기

- 농인으로서 개인의 경험 이야기하기
- 그림이나 영화를 보고 이야기 재구성하기
- 만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 재구성하기
- 달력을 이용하여 서로 약속 잡기
- 주제에 대한 토론
- 과제 수행 도우미 없이 15분간 자유 대화
- 그림에 대한 수화 단어 말하기 및 짧은 문장 만들기
-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 재구성하기
- 경고 및 금지 표지판을 보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기
- 특정 사건이 있었던 때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기
- 어떤 활동의 과정 설명하기
-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 설명하기
- 무성 영화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세대 간 서로 다른 수화 알려주기
- 농인 관련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 수화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 재구성하기
- 지도 보고 길 설명하기

2011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는 이후 수화 영상 전사 프로그램인 ILEX를 이용한 전사 과정을 거친다(2013년 현재 전사가 진행되고 있다). 1차 전사는 350~400시간분에 달하는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화 영상을 독일어로 번역한 후 문장 단위로 구분하며, 예문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부분 및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을 표시해 둔다. 2차 전사는 2015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175~200시간분의 데이터만

전사하며, 운율적 특징, 품사, 공간 이용, 시선, 체동, 문맥상 의미 등에 대해 전사할 예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다.

정밀 전사인 2차 전사까지 완료되면 2015년에 약 50시간분의 수화 말뭉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인의 실제 수화 사용이 반영된 수화 연구 및 학습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독일 수화 및 농문화의 기록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제보자의 나이, 성별, 지역 등이 균형 잡힌 말뭉치라는 특징도 있다.

말뭉치 자료 분석에 기반을 두고 편찬될 독일어-독일 수화 사전은 2023년 공개 예정이다. 수화 어휘를 기준으로 6,000여 항목을 등재할 예정이며,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 전자사전으로 편찬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어-독일 수화 양방향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수화 말뭉치의 기술적 특징으로 우선 다각도에서 영상 촬영을 한다는 점이 있다. 제보자의 정면, 위, 옆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의 움직임(수동), 손의 모양(수형) 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수화 영상을 3차원(3D)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환함으로써 제보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수화 말뭉치는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수화 말뭉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보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제보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화 말뭉치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4. 수화 교육

함부르크대학교에는 수화언어학과와 수화통역학과가 있다. 두 학과 모두 학사 과정 7학기, 석사 과정 4학기이며 수화통역학과에는 청인

만 입학할 수 있다.¹⁾ 함부르크대학교의 수화 교육 과정은 1학기는 주당 12시간의 수화 집중 교육, 2~3학기는 주당 6시간, 4학기 이후는 수화 선택 과목 중 2시간씩 2과목을 의무 수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기부터는 농문화, 농사회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화에서는 음성 언어와 달리 몸동작 자체가 언어적 요소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세 교정이 필요하며, 또한 수화 강의 시간에 음성 언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 캠프 등에서 영어 집중 교육을 받을 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익숙한 언어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더 빨리 적응하고, 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함부르크대학교의 수화 교육에서는 최근 디브이디(DVD) 및 인터넷 교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책 중심의 교육을 했지만, 수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농인의 실제 대화를 녹화한 영상 자료나 글이 전혀 쓰이지 않은 그림 교재 등도 활용하고 있다.

2.5. 수화 관련 법률 및 제도

한편 연구소의 주선으로 독일 농아인협회 관계자를 만나 독일 내에서의 수화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981년 이전에는 독일 수화 및 독일어식 수화의 구분이 없었고, 수화가 언어라는 인식도 거의 없었다. 음성 언어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독일에서는 수화 교육은 거의 없고, 구화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공부한 농인들을 통해 미국 수화(ASL)의 개념이 도입

1) 농통역(① 독일 수화-다른 외국 수화(미국 수화, 터키 수화 등) 통역, ② 독일 수화-국제 수화 통역, ③ 독일어 문어 텍스트-독일 수화 통역)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육하지는 않는다.

되었다. 독일 수화(DGS)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젊은 농인들은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나, 농사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지크문트 프릴비츠 함부르크대학교 교수가 농학교에서 농인들이 수업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은 원활히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수화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5년 '농아동 교육 및 양육에서의 수화'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에서 처음으로 수화로 발표를 했으며, 이는 농아인협회 회장조차 수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시기에 젊은 농인들이 수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유럽 전체에서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는 안이 유럽 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수화의 지위와 관련된 상황은 나라마다 달랐다. 1990년대 초반 폴란드에서는 난청인이 농아인협회의 회장을 맡을 만큼 난청인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구화를 중시하고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1989년 선출된 농아인협회 회장 프랑켄탈(Frankenthal)이 독일어식 수화를 부정함으로써 독일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농인의 이중 언어'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가 열린 후 3,000여 명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무렵이 함부르크대학교에 독일 최초로 수화통역학과 및 수화언어학과가 설립된 시기이다.

2001년 독일에서는 수화와 관련된 법이 최초로 입법되어 농인들에게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공식석상에서 농인들이 필요에 따라 수화 통역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2002년에는 장애인 평등법을 통해 농인이 수화 통역을 이용할 권리가 재확인되었고, 2006년에는 국제 연합(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독일 정부가 서명함으로써 독일 수화가 농인의 제1 언어임이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함부르크대학교 독일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



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위), 농인 교수 및 독일 농아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아래)

3. 유럽한국학학회(AKSE) 국제 학술 대회 참석

유럽한국학학회(AKSE,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국제 학술 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2013년에는 제26회 국제 학술 대회가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르네상스 임페리얼 라이딩 스퀘어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유럽에서 한국 문학, 사회학, 근대사, 현대사, 종교 및 철학, 예술 및 건축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가하는 유럽한국학학회 학술 대회에서 언어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은 아니었으나, 유럽 각국에서 한국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데 모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인적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학술 대회의 언어학 분과에서는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의 연재훈 교수, 오리건대학교 루시언 브라운 교수, 전주대학교 이숙 교수 등 7명의 학자가 개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볼 때 유럽에서의 한국어학 연구는 한국어 교육, 실험언어학, 비교언어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한국학학회(AKSE)가 언어학 중심의 학회는 아니라는 점을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EAKLE,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가 보완해 주고 있다.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는 2007년 창립되어 2008년부터 유럽한국학학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격년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20~30명의 유럽 한국어학자 및 한국어 교육자가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한국어학 연구 및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014년 워크숍은 4월 초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에서 개최된다.

4. 성과 및 시사점

국립국어원 국제 학술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7월에 유럽의 언어학 연구 현장을 다녀오으로써, 세계 우수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우선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헝가리 언어 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국어 정책 및 언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언어 정책 사례를 수집하였다.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는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기관이고, 언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적 말뭉치 구축, 온라인 맞춤법 상담 시스템 개발 등 국가적 기반 조성 및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고 동시에 언어 정책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와 언어 정보화, 다중 언어 정책 추진 등 기관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필요 시 기술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수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환경 개선이라는 언어 정책 현안에 대해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 다중언어연구센터와 함부르크대학교 수화언어학 연구소 방문을 통해 수화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연구소에서는 이민자가 많았던 헝가리 사회의 특징 등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수화를 이미 소수 언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수화 사용 의사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수화도 다문화의 하나로 인식,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함부르크대학교 독일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연구소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수화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 연구소의 수화 전문 용어 사전 편찬 사업, 수화 말뭉치 구축 사업, 수화 교육 등은 앞으로 국내에서 수화 관련 언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수화 연구 및 수화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기반 조성은 독일이 앞서가고 있으나, 수화와 관련된 단독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 등을 통해 볼 때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적 인식은 한국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독일농아인 협회에서도 한국의 수화법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적 선진 입법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한국학학회(AKSE)의 국제 학술 대회에서 유럽의 한국어학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외 한국어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할지 모색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유럽의 한국어학 연구자들을 만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우나, 이후 유럽 한국학학회뿐만 아니라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EAKLE)와의 교류를 지속하며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